

지원 분야	<input type="checkbox"/> 교환학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장기 어학연수		<input type="checkbox"/>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미국		파견 학교	플로리다 대학교	
	파견 시기	2020년 1학기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overseas culture exchange		해외 문화 체험		
		practical english grammar		영문법 수업		
		practical english listening		영어 듣기		
		practical english reading		영어 독해 수업		
practical english speaking		영어 발표				
practical english writing		영작문 수업				
체험후기	<p>신입생 때 학교 선배들의 다양한 해외연수 후기를 들으며 막연히 동경해오던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학기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University of Florida' 에서 수학했던 시간들은 평범했던 지난 학교생활에 터닝포인트가 되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p> <p>미국 학교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당연히 낮설고 언어도 잘 안 통해 어려웠지만, 플로리다 대학교의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 과정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고 친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업과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Grammar, Reading and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이 세 과목을 듣게 되는데, 매 수업마다 수준에 맞는 반에서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기만 해도 친구가 저절로 생기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Listening and speaking 시간에는 LA라고 부르는 Language Asistant 들과 함께 야외수업을 진행하는데, 플로리다 대학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LA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위주로 가르쳐주며 이야기하고 놀다보면 수업이 끝나있는 정말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p>					
						
	<p>LA 평가 나</p>		<p>우리반 LA였던 데이비드</p>			
		<p>수업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액티비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드게임, 배구, 축구, 카페프라이데이 등 같은 반이 아닌 학생들과도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특히 금요일 오후 액티비티인 카페프라이데이는 거의 모든 ELI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있어 자주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각 문화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 밤이 되고 새 친구를 사귀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스모어 나이트 액티비티 때</p>						
		<p>커피 프라이데이 날</p>				



첫 주 액티비티 웰컴피크닉



박물관 액티비티

토요일에도 방에만 있을 친구들을 위해 학교에서 매주 다른 활동을 준비해주는데, 웰컴피크닉, 놀이공원, 봉사활동, 영화관람, 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혼자서 가보기 힘든 곳들을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며 미국생활을 더욱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대학교는 스포츠로 아주 유명해서 주말에는 경기를 보러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인데, 학생증 할인으로 저렴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농구경기 관람 액티비티



미술 전시회 액티비티

미국에는 spring break라고 하는 일종의 봄방학이 일주일가량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주로 휴식이나 여행을 다니는데,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미서부의 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 샌디에고를 여행하였습니다.

미국 비행기 국내선은 짐이 많이 없다면 정말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미서부까지 '프론티어' 라는 항공기를 이용해 왕복 이십만원 정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행가던 미국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홀슈스밴드

새벽 일찍 일어나 한참을 이동하는 그랜드캐년 투어도 해보고, 라라랜드로 유명한 야경명소에도 다녀오고, 한인타운에서 그동안 먹고싶던 국밥에 한국치킨도 먹고, 바다가 너무 깨끗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샌디에고 해변에서 바다표범도 보는 일주일이라는 짧은 여정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되었습니다.



샌디에고 해변



la 야경



LA 하이웨이 풍경

또 플로리다는 각종 놀거리가 많아 타 지역 학생들이 방학에 많이 놀러오는 곳인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디즈니랜드인 ‘디즈니월드’는 꼭 가봐야 하는 명소입니다. 하루만에 다 보기 어려워 일주일을 디즈니랜드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크고, 다양한 놀거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곳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놀러가기에 좋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하는 일종의 고속버스인 ‘레드코치’를 이용하면 버스로 2~3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디즈니월드



일주일에 4번 먹은 적도 있는 치폴레

꼭 추천하는 곳들입니다. 물론 사먹는 날도 많았지만 주로 재료를 사서 간단히 해먹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마트’가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한국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고기가 저렴해서 매일매일 스테이크를 해먹어도 사먹는 밥 보다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소고기를 구매할 때는 ‘usa choice’ 등급을 구매하시면 일단 평균 이상으로 맛있습니다.

게인즈빌은 외식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음식점은 프리미엄 레스토랑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비싼 편이라 주로 학교 근처의 미국 프렌차이즈들을 많이 다녔는데, 특히 멕시코음식을 파는 ‘치폴레’를 가장 즐겨 먹었고 지금도 가끔 생각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프렌차이즈 버거집이 많지만, 게인즈빌에서 가장 맛있는 버거집은 ‘버거파이’라는 곳인데 모두가 추천하는 음식점이고 특히 어니언링이 독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에 가신다면



저렴한 고기반찬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것이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증거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해왔기에 특이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흔한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언어의 장벽으로 답답한 적도 많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미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끔은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차이의 틈을 이겨내고 인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에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에게서 긍정적인 자극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추고 '이 나이엔 대학, 이 쯤엔 자격증, 이제는 취업'이라 생각하고 남들처럼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지금은 '다르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꿈을 갖게 해 준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부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펜데믹으로 인해 마지막은 화상수업으로 진행하고, 한국에 돌아오기도 어려웠고, 긴 격리기간이 힘들었지만 그것조차 다 추억이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을 만나러 각국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창시절 한 번쯤 꼭 해 봐야 하는 경험으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해외연수입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들



보고싶은 LA친구들